



투명 라커룸(?)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지난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5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야구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126경기 중 70경기를 끝낸 KIA 타이거즈의 성적은 팬들의 바람과 달리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쉬운 KIA는 3연패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5위 삼성이 5연패로 부진했던 만큼 야구에 울고 웃는 우리 지역 야구팬들에게는 더욱 아쉬움이 남는 한 주였습니다.

얼마 전 끝난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에서 웃을 흘려 버린 던지던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급한 마음에

경기장을 라커룸에 들어온 이들은 광주 진흥고 야구부 선수들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풋풋함이 넘치는 이들은 곧잘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열정 만큼은 여느 프로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도 없지만 이들은 공 하나하나가 결승구인 것처럼, 한 타석 한 타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지고 전력질주를 하면서 그라운드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라운드에 서는 것 자체가 행복한 학생들의 아마추어 같은 열정과 땀방울, 많은 야구팬들이 KIA선수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나명주기자 mjna@

I love MY student



나 금 주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나의 교직 첫 1년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전교생은 360여명의 지방 인문계고등학교, 과학교사는 나 혼자였다. 수업은 주당 32시간이었지만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성화에 못이겨 함께 축구를 해야 하고, 수업 종료 후에는 심지어 교재연구에 매달리는 바람에 수면시간은 하루 4시간에 불과했다.

1975년 4월 하순 습이다. 가정방문 기간이 되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업전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3년 만에 광주의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지난해 A군으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다. A군의 고교 졸업 후 첫 만남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옛날의 귀엽고 예쁘장한 얼굴은 40대 후반의 어엿한 중년의 사회인으로 변했지만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A군은 대뜸 고교 1학년 때의 가정방문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 날의 가정방문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A군은 가정 방문 전까지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의 가정 환경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털어냈다.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농사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럽게 생각됐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잔소리였을 뿐이고, 그런 아버지에게 공손했을 리도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를 새롭게 인

나의 교직 '첫 1년'

5개 읍, 면을 찾아다녔다. 반 학생 가운데 유달리 귀엽고, 착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A군이 있었다. A군의 집은 바닷물이 밀려오면 섬이 되고 썰물이 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연안의 섬이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배가 있을 리 없는 작은 섬이었다.

A군 아버지가 담임인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농사일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아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시기가 남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 초·중학교 교사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집으로 직접 찾아와준 것에 매우 고마워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A군에게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분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A군은 무사히 고교를 졸업한 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공

식하게 됐다고 했다. 그 날 들려준 나의 얘기가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광양제철 강부를 지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술사자격증 취득 학원 원장 및 전문 경영인으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교직의 보람을 만끽하면서 밤 늦도록 제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들려준 사소한 몇 마디 이야기가 제자의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큰 울림으로 남아 삶의 원동력이 됐고 나를 좋은 선생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이 보다 더 한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33년 전의 작은 섬마을과 나를 각별하게 맞이해주신 제자의 아버지, 내 뒤를 따라오며 나의 이야기에 응답하고 나의 가정방문에 고마워하던 착한 고등학교 1학년 제자를 그려보며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다.

리빙 센스

운동할 때 필요한 자세①

1.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나한테 맞고 가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운동을 생활화한다. 운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집 주변 산책하기, 청소하기, 다림질 하기 등도 많은 양의 칼로리 소모가 가능한 운동이다.
3. 욕심을 버리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운동량이 급증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쉽게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틈틈이 반복하여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음 5월 21일 乙未)

子	36년생 분주한 하루가 되리니 준비하라. 48년생 구사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다. 60년생 오전에 불행이나 후는 평안하라. 72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없으니 협조하라. 84년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덕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33, 36
丑	3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49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61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라. 73년생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85년생 먼저 도움을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행운의 숫자 : 19, 28
寅	38년생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과감하게 진행하며 나가라. 50년생 흐린 날씨가 개이고 평하니 해가 뜨리라. 62년생 간절히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74년생 뒤로 주고 앞으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08, 37
卯	39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51년생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부단히 살피라. 63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괴리감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라. 75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10, 45
辰	40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52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64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76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양해를 이야기하라. 행운의 숫자 : 41, 43
巳	41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53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65년생 손윗사람의 금전거래는 불랑거래가 될 수도 있다. 77년생 양보 받고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행운의 숫자 : 32, 42
午	42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심성을 안정하라. 54년생 갑자기 속 터지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66년생 깨진 불도 다시보자 화제를 주의하라. 78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행운의 숫자 : 31, 35
未	43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55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라. 67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79년생 오늘은 문답술을 잘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44
申	44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끝이 없다. 56년생 저녁의 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68년생 소중함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단속을 잘해야 한다. 80년생 남과 말다툼은 절대 피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9, 40
酉	45년생 외적인 미려함보다는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5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 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69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라. 81년생 숙전숙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01, 38
戌	46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라. 58년생 형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라. 70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 번 더 점검하라. 82년생 부부간에 의욕하고 다정할 시간을 내라. 행운의 숫자 : 05, 20
亥	47년생 충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편하다. 59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1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라. 83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3, 12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대학

가 31 18

14 25 26 22 30

13 27 24

15 29 28

17

16 21 19 20

대한주탁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두터움과 중복의 차이

3회전 1국 2보(13~31)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현승 5단 (창이유통)

김현승 5단은 백 △로 쳐들어 오자 뒤도 돌아 보지 않고 흑 13으로 알기 쉽게 막은 다음 다시 15로 튼튼하게 백 한점을 잡아 버린다. 정말 피 한방울 안나오는 수다. 그러나 이 수는 왼쪽의 흑 한점과 너무 가까이 두렵다고 볼 수가 없는 완전 중복형이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을 선수

한 다음 3으로 협공하여 7까지 밀어붙이고 9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모양은 백 전체가 아직도 못살아 있어 흑이 즐거움이 많다.

박광주 5단은 22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김현승 5단은 한없이 느리게 두텁게만 두고 있다. 곧마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식이다.

백 24는 '가'쪽으로 두고 싶은 곳. 그랬으면 상변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가 있었다.

흑 25가 최초의 적극적인 침입이며 흑 31까지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아시아 아마바둑 축제 탄생

아시아 아마 바둑인들의 축제가 탄생했다. 대만 기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제1회 CMC배 아시아 아마바둑 10강전을 개최한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16개국 32명이 스위스그리프 총 8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우승 상금은 5천달러, 준우승에게는 3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국은 대한바둑협회 아마랭킹 1, 2, 3위인 송홍석·강창배·김남훈 아가7단이 출전한다. 바둑 전문 사이트인 사이버오 (http://www.cyberoro.com/)에서 주요대국을 생중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88>

Am I allowed to take a break? 쉬어도 됩니까?

A : Your shift is from five until midnight.  
B : Am I allowed to take a break?  
A : Yes, you have a one hour break form 7 : 00 to 8 : 00 to eat dinner.  
B : All right.

A : 자네 근무 조는 5시부터 자정까지야.  
B : 쉬어도 됩니까?  
A : 그럼, 저녁식사 때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정도 쉬어도 좋네.  
B : 알았습니다.

\* shift : 근무조  
\* take a break : 잠깐 쉬다  
\* 방문객 분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도 될까요?  
= Am I allowed to let visitors in?  
\* be allowed to ~ = ~해도 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88>

今(いま)懐(ふところ)が寂(さび)しいんだ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

A : 明日(あした)は土曜日だし、仕事が終(お)わったら、おいしい物でも食(た)べに行かないか。  
B : うん、行きたいのは山(やま)やま(やま)だけど、今(いま)懐(ふところ)が寂(さび)しいんだ。  
かみさんが財布(さいふ)握(にぎ)ってるからね。  
A : 給料日(きゅうりょうび)まで一週間もあるなあ。じゃ、僕(ぼく)がおごるよ。  
B : 本當、それなら話(わ)は別(べつ)だ。

A : 내일은 토요일이나, 일 끝나면 맛있는 것이라도 먹으러 가지 않을래?  
B : 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 마누라가 지갑을 쥐고 있으니까.  
A : 월급날까지 1주이나 남았네. 그럼, 내가 왜 테니까.  
B : 정말,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가자)

握(にぎ)る : 장악하다, 쥐다  
おごる : 한턱내다  
かみさん : 처, 마누라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65>

我去奶奶家。  
할머니 댁에 갑니다

A: 你去哪儿?  
Nǐ qù nǎr?  
니 어디 가?  
E: 我去奶奶家。  
Wǒ qù nǎinai jiā.  
내가 할머니 댁에 가.  
A: 奶奶在家吗?  
Nǎinai zài jiā ma?  
할머니 댁에 계세요?  
E: 奶奶在家。  
Nǎinai zài jiā.  
할머니 댁에 계세요.

A: 어디 계세요?  
E: 할머니 집에 갑니다.  
A: 할머니 집에 계세요?  
E: 집에 계세요.

去 [qù] 가다  
奶奶 [nǎinai] 할머니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

한자 이야기 <805>

朴淵瀑布(박연폭포)

성서 박, 못 연, 폭포 폭, 배 포

박연폭포(朴淵瀑布)는 개성시에서 북쪽 16km 지점에 있다. 옛날부터 서경,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지던 승경(勝景)이다. 아호비령산맥 중 선인이 산다는 성거산(聖居山)과 하늘을 갈아 만들었다는 천마산(天馬山) 사이의 협준한 골짜기로 흘러내린 물이 박연(朴淵)이라는 연못에 고였다가 고모담(姑母潭)이라는 연못으로 흘러 떨어지고, 다시 서쪽 기슭에 있는 범사정(泛斯亭) 아래 바위로 갈매야 오조천으로 흘러든다.

'박연'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 하나는 박 모양을 이룬 연못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씨(朴氏) 성을 가진 총각이 빠진 연못이라는 것이다. 천마산에 박씨 총각이 흠어머리를 모시고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박총각은 나무를 하러 갔다 올 때는 연못가 선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 어느 날 박총각이 피리를 불자 용궁에 사는 선녀가 나타나 자기와 결혼하자고 박총각을 안고 연못에 빠졌다. 흠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연못에 왔다가 아들은 찾지 못하고 폭포아래 못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폭포 위의 연못은 '박연'이 되고, 폭포아래 연못은 시어머니 연못이라는 '고모담'이 되었다. 박연폭포의 시원한 물기둥에서 폼이 나오는데 물보라 속에 있으니 개성이 있다는 실감이 생겼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